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평가로 바라 본 향후 유라시아 경제 연합 전망

김초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p>I 서론</p> <p>II 유라시아 경제 통합 과정과 러벨카 관세동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라시아 경제 통합 과정 2.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p>III 러벨카 관세동맹의 경제적, 정치적 효과 분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적 효과 2. 정치적 효과 	<p>IV 유라시아 연합 전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동맹 평가 2.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한계점 3. 유라시아 연합 전망 <p>V 결론</p> <p>참고문헌</p>
--	--

초 록

지난 23년 동안 CIS에 속해있는 다른 국가간의 재통합 효과 확산을 목격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가 변화하는 방식 및 통합 목표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부분적인 중복은 몇 개의 지역통합 기구를 형성시켰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GUAM 기구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화의 틀을 형성하게 했다. 통합의 속도와 수준은 이러한 구조 내에서 급속히 변한다. 협정의 그 어떤 것도 유럽연합(EU)내에서 이룬 통합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협정은 초국가적 및 정부간의 거버넌스 모드 방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1991년부터 포스트 소비에트에서 결성된 가장 야심찬 지역 통합 프로젝트 중 두 가지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사이의 관세 동맹(CU) 및 공동 경제 구역(CES)이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은 2015년에 결성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카리모프는 1994년 3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연설에서 이니셔티브를 개념화시켰으며, 2011년 10월 4일 대통령, 그 당시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Izvestia" 신문에 그와 관련된 기사를 실었으며 그 이후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가속화 되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출범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2010년 관세동맹이 결성되었고, 관세동맹은 동맹국가 간 동일 관세를 부과하며, 해외 경제 활동의 단일 상품 명명법을(2010년 1월부터 실효)제정하고, 동일관세 및 무관세 규정을 검토하며, 통관 및 세관검사에 대한 공동의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은 이러한 관세동맹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정의 될 수

I. 서론

소련붕괴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세계열강들의 각축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인도 및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가히 냉전 이후 벌어지는 최대의 지전략적 경쟁으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으로 불리기도 한다.¹⁾

이러한 유라시아(Eurasia)가 최근 국제적인 화두다. 세계 각국이 부쩍 유라시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마다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여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를 둘러싸고 요즘 한창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연합(Eurasia Union)이다. 유라시아 연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도 하의 대륙지역주의 통합이다. 푸틴 대통령은 구 소련국가들을 불러모아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형성하려는 야심을 드러낸지 이미 오래됐다. 러시아와 함께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있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럽연합(EU) 수준의 단일경제공동체로 출범시켜 ‘옛 소련의 영광’을 부활 시키는 것이 푸틴의 꿈이다. 유라시아 연합은 2011년 10월에 러시아 대통령, 그 당시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본래 이 개념은 1994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모스크바 대학의 연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²⁾ 2011년 11월 18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대통령들은 유라시아 연합을 2015년까지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 조인 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의 동참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 연합(EEU)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론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 즉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이름 그대로 경제적 효과를 통해서 지역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경제적 효과만으로 지역이 통합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다. 실제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흩어진 지역을 다시 통합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협력 또한 양자적 및 다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으며 그 과정에 많은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이 형성되었다.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와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이 지역통합을 이루기 시도 중에 형성된 대표 지역기구들이다. 이들 CIS 국가들이

1) 신범식(2006),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pp. 15-20

2)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kazakhstan/8808500/Kazakhstan-welcomes-Putins-Eurasian-Union-concept.html>, (기사 날짜: 2011. 10. 06)

지역협력을 이루려는 주요 목적은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주목 받고 있는 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에 관세동맹은 EU 수준의 완전한 경제 통합(Single Market)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 협정이자, 향후 유라시아 연합의 출범 과정의 단계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회의론을 전제로 하여 본 논문은 유라시아 연합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관세동맹 제기가 과연 유라시아 연합 예측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통합의 과정과 관세동맹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관세동맹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평가해 보고 향후 유라시아 연합에 대한 나름의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II. 유라시아 경제통합 과정과 러벨카 관세동맹

1. 유라시아 경제통합 과정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과정에는 여러 지역통합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추진된 경제통합의 시초는 1993년 9월 CIS 국가들 가운데 9개국³⁾이 가입한 경제연합협정 (Economic Union Treaty)이다. 이 협정은 CIS 경제통합을 위한 목적 하에 CIS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 무역연합(Free Trade Association), 관세동맹(Customs Union), 상품 및 서비스, 자본, 노동 부문에 대한 CIS 공동시장, CIS 통화동맹(Monetary Union)을 결성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⁴⁾ 그리고 관세동맹 설립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 철폐하고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와 공동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내 단일 경제 시장 건설을 목표로 역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반독점규제를 포함한 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⁵⁾ 경제연합협정은 그 자체로서 CIS 경제통합체를 결성하는 직접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1994년 4월의

3) 투르크메니스탄과 그루지야가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1994년에 준회원(associated member)로서 참여하였다. Oleksandr Sushko(2004), pp. 119-131.

4)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от 24 сентября 1993 года. Статья 4.

5) Ibid., Статья 6.

자유무역지대 협정(Agreement on a Free Trade Area)과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체결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2000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등 보다 구체적인 협정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기본 협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⁶⁾

CIS 국가들은 양자간 협정 이외에도 여러 개의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GUUAM⁷⁾, 중앙아시아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공동농업시장(Common Agrarian Market) 협정 등이 있다.

[표 1] CIS 지역의 주요 통합기구 현황

명칭	참가국	창설시기	주요활동 및 목적
독립국가연합(CIS)*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준회원국: 투르크메니스탄)	1991년 12월	구소련의 계승 조직으로 역내 정치, 경제, 안보 등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92년 5월	국경관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안보문제
GUAM**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준회원국: 터키)	1997년 10월	정치, 경제 협력 및 유럽과의 협력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2000년 10월	경제통합, 교육, 사회보장 등
상하이협력기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2001년 6월	안보문제, 국경관리

6) Ibid., Статья 7.

7)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를 의미한다.

(SCO)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ACO)***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2002 년 2 월	중앙아시아 지역협력
공동경제구역 (CES)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2003 년 9 월	공동경제구역 창설
관세동맹 (CU)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0 년 1 월	경제통합 및 제 3 국 공동관세

주: *그루지야는 1993 년에 가입했으나, 2008 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른 후 탈퇴함으로써 현재 CIS 는 11 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즈베키스탄은 1999 년에 가입하였으나, 2005 년에 탈퇴하였음.

***이 조직은 1994 년 중앙아시아연맹으로 출범하여 1998 년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CAEC)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6 년 1 월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으로 흡수, 통합 되었음.

자료: Oleksandr Sushko(2004), "The Dark side of Intergration: Ambitions of Domination in Russia's Backyard", The Washington Quaterly, 27:2, pp. 119-131; 김영진(2007),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통합: EurAsEC」. 『중소연구』, 31 권 3 호, p. 189 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중앙아시아협력기구는 1994 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3 국이 중앙아시아연맹 (Central Asian Union)을 결성한 뒤, 1998 년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점진적인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 환경 조정, 반독점규제와 투자 및 관세정책 통일 등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후 2002 년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4 년에는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2005 년 최종적으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흡수·통합되었다. 공동농업시장 협정은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합리적인 농산물 분배, CIS 지역 농산물시장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CIS지역 공동의 농업정책을 기반으로 공동농업시장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려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⁸⁾ 공동농업시장 협정은 1998년 CIS 12 개국이 서명하였으나, 실질적인 공동농업시장 설립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CIS 국가간 농업 시장의 발전 수준 차이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동농업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보조금 비용에 대한 CIS국가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007년 러시아가 탈퇴하면서 협정은 단순히 협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CIS 국가들이 체결한 여러 다자간 협력체 중에서도 현재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구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CIS 국가가 역내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 설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설한 국제경제기구로서, 1990년대 체결된 CIS 관세동맹을 대체하는 협력체이다. 1995년 1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 양자간 관세동맹 협정이 체결되었고, 1999년까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였다. 비록 당시 관세동맹 협정은 법적·제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소멸되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상기 5개국은 2000년 10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1년 5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역외 공동관세(CET)를 적용하는 CIS관세동맹 창설하고 더 강력한 경제통합체인 CIS 공동경제구역 창설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⁹⁾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의 정회원인 5개국 외에도 현재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옵서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발효된 2001년에 카리모프 정부는 반러시아적 대외정책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GUUAM을 탈퇴하고 2006년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2008년 10월 EU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재의 상당부분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자, 회원국 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유럽과의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¹⁰⁾

[표 2]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발전단계

연도	내용
1994년 1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유라시아공동체 창설 제안

8)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щем аграрном рынке государств-участников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от 6 марта 1998 годаб Статья 3.

9) Patrizia Tumbarello (2005), pp. 9.

10) <http://www.me-journal.ru/357/43691>

1995 년 1 월	러시아 벨라루스 관세동맹 협정 서명
1995 년 1 월	관세동맹에 카자흐스탄 가입
1996 년 3 월	관세동맹에 키르기즈스탄 가입
1999 년 2 월	관세동맹에 타지키스탄 가입
2000 년 10 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설립 협정 서명
2001 년 5 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설립 협정 법적 효력 발생: 5 개 정회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2002 년 5 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
2003 년 1 월	아르메니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
2006 년 1 월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정회원 가입
2008 년 10 월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활동 임시 중단

자료: 이재영 외 3인(2011),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1-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90-122.

유라시아공동체의 주요 목표는 과거부터 관세동맹의 창설이며, 그 이후 CIS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하여 CIS 경제권을 세계경제와 세계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몇 가지 과제를 정하고 있다: 1) 완전한 자유무역체제 구축, 단일 관세율 적용, 비관세조치분류의 통일화; 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3) 공동금융시장 설립; 4) EurAsEC 차원의 단일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 합의; 5)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위한 공통 규정 마련; 6) 통일된 세관체계 구축; 7) 국가간 특별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8) 생산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균등한 여건 조성; 9) 단일화된 운송서비스 및 교통체계 구축; 10) 공동에너지시장 설립; 11) 역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단일화된 요건 마련; 12) EurAsEC 역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13) 공동노동시장, 공동교육공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 정책 합의; 14) 회원국들의 국내법 상호 조율 등.¹¹⁾ 이 중에서도 운송, 에너지, 노동 이주, 농업 등의 분야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해결해야 하는

11) <http://www.evrazes.com/about/history>.

우선과제이다. 특히 운송의 경우, 관세를 통일시키는 문제 뿐 만 아니라 통관절차의 간소화하는 등을 통해 국제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기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력발전소 개발과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공동농산물 시장을 설립하여 국가간 농산물 운송·저장·판매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²⁾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CIS 체제와 차별되는 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CIS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CIS 체제 내에서 군사 및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은 국가간 협력방안이 논의 되어 왔으나, 기구의 법적 지위 및 결정된 사안 준수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였다. 반면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과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UN, WTO 등 국제기구에 지역주의로 등록하였다. 또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기구운영을 위한 예산부담 및 의결권을 국가별로 배분하고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¹³⁾ 기존 CIS 체제와 차별된다.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과 유라시아 연합

유라시아경제공동체제가 설립된 후 13 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 국 관세동맹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지역통합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IS 지역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럽연합(EU) 수준의 유라시아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설립하는 것이다.

관세동맹은 1995 년 1 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 양자간 관세동맹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 1999 년까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당시 이 관세동맹 협정은 비록 법적·제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소멸되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위 5 개국 정상들은 1999 년에 공동경제구역의 단계적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 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서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Common Economic Space)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2) Zamirbek Manasov (2008), "The aspects of central asian economic integration after 1991: the reasons of inefficienc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pp. 42.

13) 하유정 (2001),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지역리포트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8

2006년 8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만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국가는 관세동맹 설립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각국의 관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2007년 관세동맹위원회(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을 설립하고 관련 법 개정 등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3개국 통합관세율을 채택하였고, 2010년 1월 관세동맹을 공식 발효시킨 후 2010년 7월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한 '통합 관세법'을 공동으로 발효하였다.

마침내 2010년 1월 공동관세 및 비관세 규제를 위하여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출범하게 되었고, 아울러 2012년 1월 공동경제구역이 출범함에 따라 궁극적 경제 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설립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관세동맹의 출범은 EU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시급해짐에 따른 초대형 경제블록의 예비단계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 극동과 CIS 동부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서부지역으로 EU의 팽창이 가시화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중국의 경제 비중이 커지고 중국 인구의 유입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 정당이 EU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고 있으며 EU가 미국과 공동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유라시아 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정치적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경제적 효과: 러·벨·카 관세동맹국의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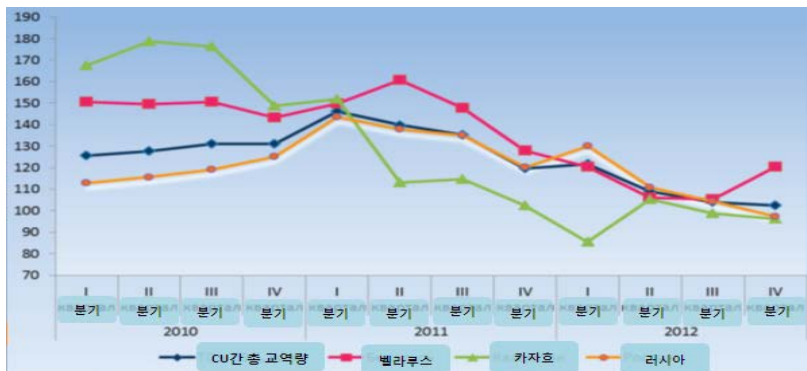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관세동맹을 결성한 이후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해 더 활발해졌다.

[표 3] 관세동맹(CU) 상호 수출입 규모 및 비중

국가	2010		2011		2012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벨라루스	10 418.4	22.1	15 182.9	24.1	17 090	24.9
카자흐스탄	5 999.2	12.7	7 103.3	11.3	6 837.8	10
러시아	30 717	65.2	40 814.7	64.6	44 654.4	65.1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47 134.6	100	63 100.9	100	68 582.2	100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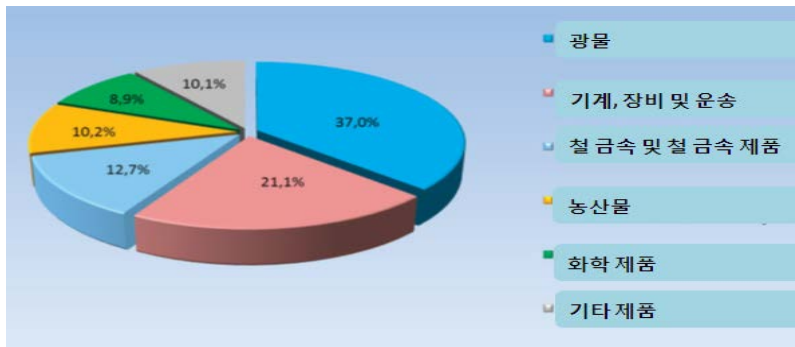
[그림 1] 관세동맹(CU) 상호 교역량 (전년 동기 비율)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관세동맹국가들 간의 교역량은 관세동맹 결성 이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2012 년 관세동맹(공동경제구역)의 역내 무역에 있어 러시아의 대 벨라루스, 대 카자흐스탄 교역량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12 년 러시아의 교역량은 관세동맹국들간의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1%로 무려 반 이상 넘게 차지하는 등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경제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림 2] 2012 년 관세동맹(CU) 국가 간 수출 상품 구조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관세동맹(CU) 국가 간 수출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광물이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37%), 그 다음으로 기계, 장비 및 운송이며(21.1%), 철 금속 및 철 금속 제품(12.7%), 농산물(10.2%), 화학제품(8.9%)가 차례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관세가 현저히 상승하여 직접 수출을 포기하고 역내 생산과 수출로 전환하면서 현지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동맹은 직접적인 관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세관수속 절차 생략으로 종합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에는 역내 세관 통과 시 12~24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010 년 7 월 이후 역내 수출입 시 원산지 증명서류가 불필요해지는 등 서류 행정의 간소화 되고 있다. 반면, 공동관세율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종전보다 상승하여 WTO비회원국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로 수출원가가 상승할 것이다. 단순평균관세율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관세율이 무려 72% 상승했으며, 가중평균관세율¹⁴⁾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115.2%, 벨라루스는 35.4% 상승하였다.

[표 4] 공동관세 적용 전후 관세 비교 (%)

¹⁴ 14) □□□□□□□□□□ □□□□ □□ □□□□ □□ □□□□ □□□□ □□□□□□□□ □□ □□□□ □□□□ □□□□□□.

구분	공동관세 도입 이전			공동관세 도입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단순평균관세율	10,6	10,77	6,16	10,6
가중평균관세율	12,34	8,04	5,06	10,86

자료: 이재영 (2011),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1-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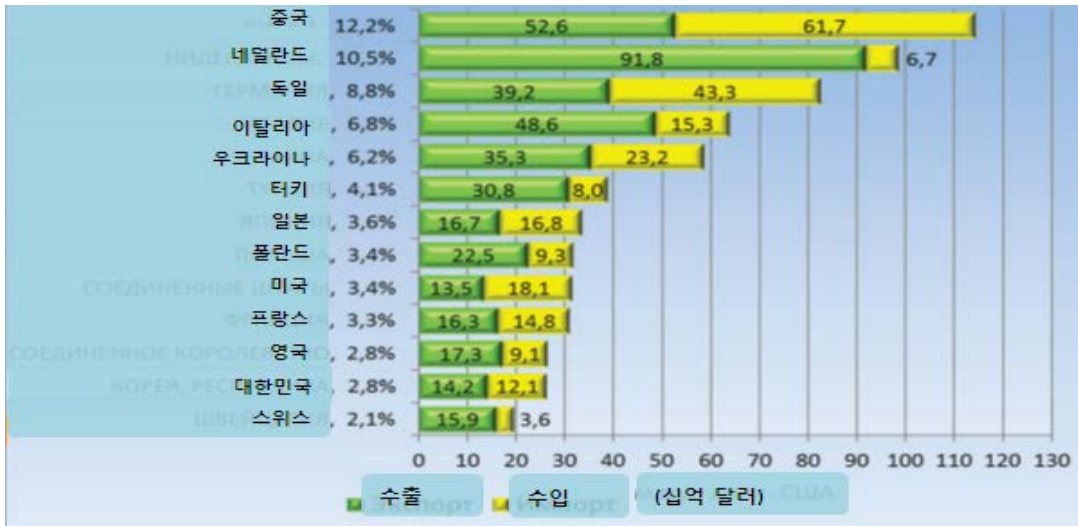
[표 5] 관세동맹국과 제 3 국의 교역 규모 (십억 달러)

2010	교역량	수출	수입	증가율
벨라루스	31.1	14.9	16.2	-1.3
카자흐스탄	72.5	54.3	18.2	36.1
러시아	582.7	368	214.7	153.3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686.3	437.2	249.1	188.1
2011	교역량	수출	수입	증가율
벨라루스	46.5	26.3	20.2	6.1
카자흐스탄	101.6	80.5	21.1	59.4
러시아	762.6	477.9	284.7	193.2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910.7	584.7	326	258.7
2012	교역량	수출	수입	증가율
벨라루스	47.6	28.9	18.7	10.2
카자흐스탄	112.2	85.4	26.8	58.6
러시아	779.5	485.8	293.7	192.1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939.3	600.1	339.2	260.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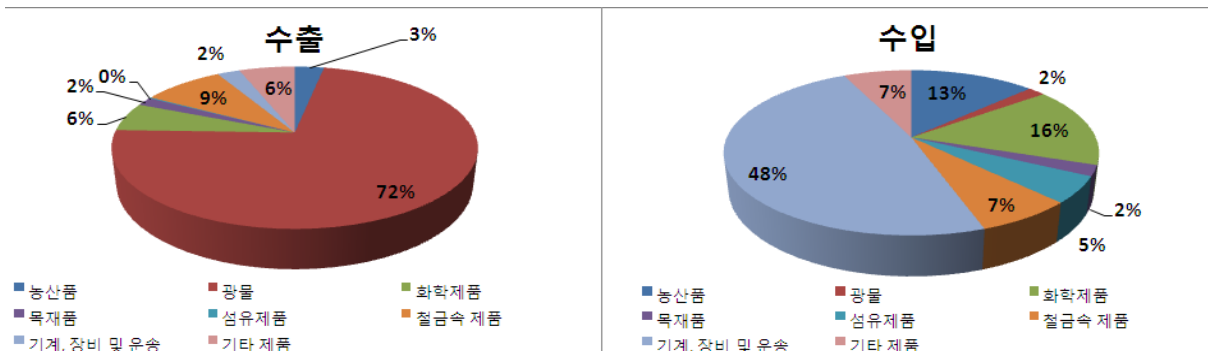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그림 3] 2012 년 기준 관세동맹국의 국가별 교역 비중(%)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그림 4] 2012 년 기준 관세동맹국 수출입 상품 구조 (%)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관세동맹국가들의 국가별 교역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두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관세동맹국가에게 제 1 교역국이다. 관세국가들의 대 네덜란드 교역에 있어서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동맹국가 교역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네덜란드에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수출-91,8%)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러시아의 교역량은 관세동맹국가 전체 교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동맹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광물자원, 목재품, 섬유제품 등 원자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장비 및 운송과 같은 기계 및 기기제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관세동맹국가 교역 국가 12위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전체 교역 국가 중 2,8% 비중으로 이웃 국가인 중국(12,2%), 일본(3,6%)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 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CIS 통합과정에 맞춰 관세동맹국들과의 FTA 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와 원자재 산업 중심인 CIS 국가와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므로 향후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일시장 선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 개국의 관세동맹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SWOT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수출 확대 ◆ 현지 제조사들의 세금 혜택 ◆ WTO 가입과정에 대한 선경험 ◆ 관세법 선진화 ◆ 역내수출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관세동맹 경험 부족 ◆ 틈새 또는 새롭게 성장할 상품 소개 기회 감소 ◆ 러시아 상품시장 점유 확대
기회(Opportunities)	위험(Threat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다변화 ◆ 법, 규제, 기준(Standards) 등의 국제화 ◆ 제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S 역외교역 축소 ◆ 역외교역 축소에 따른 가격상승 (10~20% 예상) ◆ 경험부족에 따른 통관 부패 고조 ◆ 경제지역주의 강화(블록화)
--	--

2. 정치적 효과 ¹⁵⁾

(1) 역내 무역 자유화

관세동맹의 정치적 효과는 주요 목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역내 무역 자유화에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출범 이전에 이미 CIS 국가간 다자 및 양자간 FTA 를 통해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었으나 각국은 FTA 상대국 별로 자유무역 예외품목을 양자간에 설정하여 수시로 합의하고 수정한 의정서를 채택해 왔다. 즉 이들 국가는 자국의 시장개방으로부터 배제한 품목을 CIS 상대국마다 다르게 설정해 왔다. 그러나 관세동맹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상호간의 예외품목을 점차 없애면서 완전한 무관세 무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현재 3 국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상호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및 공중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문화가치 등을 위한 보호조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세 및 수량 제한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동맹 국가들은 관세철폐 외에도 2011 년 7 월 1 일 3 국간의 세관통과 절차를 취소함으로써 역내무역을 자유화 하였다. 단일 관세 안에 있는 상품은 별도의 세관수속 없이 3 국간의 국경을 쉽게 이동하게 되었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상품은 물론 한국 등 제 3 국에서 유입된 상품에도 해당된다.

(2) 제 3 국에 대한 공동의 무역정책

제 3 국에 대한 공동의 무역정책이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이외의 제 3 국에 상품을 수출입시 적용되는 공동의 무역 정책으로써, 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관세장벽의

¹⁵ 15) □□□□ 3 □(2011), 「CIS □ □□□ □□□□ □□ □□: □□□□ □□□□」, 『□□□□□ 11-26』, □□□□□□□□, pp. 90-122.

경우, 공동의 관세를 적용한다. 공동관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세동맹 영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관련 회원국의 국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높은 관세율, 해당상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공동관세율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국제 우주개발연구 협력을 위한 수입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관세인하를 제공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화물승객 국제운송수단 등 9 종류의 제 3국 상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제 3국에 대해 수출입 금지조치, 수량제한조치, 수출입 허가, 공중·도덕·환경 인건·생명 보호, 안보 등 예외적 사항, 국제수지 보호 등과 관련된 제한 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대체로 GATT 요건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제 3국 교역에 대한 조치 적용협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관세동맹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관세동맹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는 관세동맹 국가들이 합의한 단일대상 상품 품목(오존층 파괴물질, 유해폐기물, 특정 총기류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7월 1일 까지 관세동맹 국가들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무역 구제 즉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제 3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부과협정(2008)¹⁶⁾이 발효되었으므로 무역구제조치는 관세동맹 차원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3) 관세동맹국의 WTO 가입

이외에도 관세동맹국들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3국 관세동맹의 특징 중 하나가 WTO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세동맹의 무역정책은 결국 각국의 WTO 가입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09년 6월 9일 EurAsEC 정상회담에서 관세동맹의 형태로 WTO 동시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 출범에 따라 각 국가별로 WTO에 가입하기 위해 진행해 온 협상을 모두 중지하고 단일관세영역으로서 가입 의지를 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⁷⁾ 그러나 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로 결국 3국 공동가입 계획을 취소하고 원래의 개별 트랙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2012년 1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7월 러시아의 WTO 가입 비준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며 WTO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남은 관세동맹국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

16)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от 25 января 2008 года.

17) 관세동맹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한 분석은 Sherzod Shadikhodjaev, 황지영(2009),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 09-30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보다 확실히 되었으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WTO 가입의 적극 지원에 대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카자흐스탄 WTO 가입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가입을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WTO 가입이 완료되면 관세동맹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WTO 회원국들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결성한 관세동맹이 WTO 체제와 상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V. 유라시아 연합 전망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관세동맹 경제적 및 정치적 효과 분석을 적용하여, 유라시아 지역통합이 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라시아 연합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 받고 있는 관세동맹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통해 향후 유라시아 연합에 대한 나름의 전망을 내보고자 한다.

1. 관세동맹 평가

관세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효과는 앞서도 살펴봤듯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관세동맹 각 국가들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이번 관세동맹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데,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 상품인 고기, 곡식, 유제품 등은 연간 40% 이상의 수출 증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원개발 관련 산업부문이다. 여기서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대 러시아 자원수출(원유, 석탄, 우라늄, 희귀금속 등)이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체 교역규모의 확대이다. 그러나 교역부문은 아직도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예상하고 있는데, 예로, 카자흐스탄은 관세 동맹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가 5~10% 증가했기 때문에 제 3 국가와의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농업, 자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풍부한 자원과 농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에 따라 대상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예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발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동맹에 따라 외부 노출이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상품 생산 품질이 높아지면서 카자흐스탄 현지 제조사들을 생존을 위해서라도 WTO 기준에 준한 상품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동맹은 러시아의 교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앞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러시아로선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국제적 위상 강화, 경제 이익 창출 등 다양한 핵심 국익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옛 소련 구성국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데다 중국 경제력의 침투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통합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¹⁸⁾

2. 유라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한계점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설립 된지 13 년이 지난 지금도 2010 년에 창설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 관세동맹 마저, 처음 계획했던 수준의 지역경제통합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유라시아 지역 통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 까? 유라시아 지역 통합이 부진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회원국이 유라시아 전체의 공통된 이익보다 각국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회원국 간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둘째,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상위기관의 결정이 각 회원국 영토 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각국의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상위기관의 결정이 각국의 국내법에 위배 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에 대해 권고하는 데 그칠 뿐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국제 조약 및 협정에 가장 강력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국제협정이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국제협정과 상호 배치될 소지가 있었다.¹⁹⁾ 이렇듯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법적·제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명실상부한 CIS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각국 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간 위원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높아 러시아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유라시아 연합 전망

18) 김성휘, 「러시아 경제대국의 꿈」, '유라시아 경제연합' 시동, 머니투데이 (2011. 08. 22).

19) Ергали Байльдинов(2011),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проблемы и ориентиры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4.

앞에서 살펴봤듯이, 관세동맹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라시아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은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내에 국가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부각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본질적인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와 제도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개선의 속도가 느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유라시아 연합(EEU)은 명실상부한 지역통합을 이루는 수단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비교적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의미있는 행위자로 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경제적 자신감과 저력이 충분한 데다 그 동안 러시아의 지역 재통합 시도를 견제해 오던 미국과 유럽이 집안단속에 골몰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도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니콜라이 페트로프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연구원은 «서유럽 국가들이 재정문제에 허덕이는 동안 푸틴 총리는 교묘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며 «지금 이 경제연합 건설 계획을 실현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성공하자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우선 우크라이나의 동참이 필수 적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국토 면적 2위, 인구는 5위에 이르고 식량 생산, 자원보유, 기술력 면에서 지역 내 러시아 다음가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푸틴 대통령 조차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경제연합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관세동맹과 동시에 유럽연합(EU)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2015 년 초반까지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추진에 탄력을 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잠재적인 라이벌로 인식될 수 있는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형성은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에게 두 협력체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압력의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측도 이들 국가들이 향후 수 년 내에 냉혹한 결정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RFE/RL 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아르메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동시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체제에 가입하는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만약 아르메니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유럽연합과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연합체 구성 국가들은 개별적인 대외무역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합체의 틀에서 대외무역 정책을 조정받기 때문» 이라고 한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비록 지난해에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상황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너무나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영국의 브링엄대학의 드라그네바(Rilka Dragneva) 교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같은 국가들을 파트너로서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유럽연합으로서는 이들 국가들의 가입이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님을 드러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를 구성했던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히 발전시켰다. 따라서 향후 우크라이나의 행보가 매우 주목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따라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단절과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뿐 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에서 포스트-소비에트 경제모델이 공고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관세동맹을 거부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유럽지역과는 거리를 두게 되며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핵심 지역인 중앙아시아지역과 더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포괄하고자 할 수도 있다.²⁰⁾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주변 국가들이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참여하도록 러시아가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가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유럽연합과의 여러 사안의 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로서 협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무기이다. 러시아 정부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참여할 경우 가스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다.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 국가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관계가 공고화 되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이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던 다른 경제연합체와는 달리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제도화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매우 포괄적인 법적 사안들에 근거를 두고 제도화 되어왔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이행되고 개선되고 있다.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본사에는

20) 박지원, (2013) 「유라시아관세동맹의 추진 전망」.

1 천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 유라시아 경제협력체(EurAsEC)의 법원이 현재 관세동맹의 공식적인 중재법원이 되었다. 이 중재 법원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관세동맹의 정책에 위반되는 기업들의 사안에 대해 처리한 바 있다.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현재 매우 러시아 중심적인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사용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2)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참여와 러시아의 반응 ²¹⁾

아르메니아의 사르키시안(Serzh Sarkisian) 대통령은 지난 9 월 3 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함. 그는 아르메니아가 이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의 과정과 관세동맹에 아르메니아가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고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아르메니아의 국익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현재 유럽연합과 논의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협력체인 집단방위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 역시 관세 동맹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된 요인이다. 군사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같은 국가라면 경제적 공간에서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아르메니아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산하의 여러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작업이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 기구들과의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추진 과정에 아르메니아가 참여하기로 한 것은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양 국가의 상호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다.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협력에 있어 아르메니아의 유라시아 연합의 참여는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정을 촉진시키고 양국의 경제적 실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아르메니아의 관세 동맹 가입은 아직 러시아 외의 다른 회원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아르메니아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21) Armenia to join Customs Union, RFE/RL, 2013. 9

아니라, 러시아 내에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제 1 의 해외 투자국이기도 하다.²²⁾ 한편 아르메니아 제 1 야당 당수인 아르주마니안(Alexander Arzumian)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논평하였으며 아르메니아의 유라시아 관세 동맹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럽과의 통합 및 협력의 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금년 11 월 빌니우스(Vilnius)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다.²³⁾ 하지만 이제 대해 유럽연합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과 동 사안을 양립 가능한 사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될 것 이라고 나름의 전망을 해본다.

V. 결론

최근 들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관세동맹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경제공동체 성립에 대한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등 CIS 지역 내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 지역 내의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경제통합의 추진에 소극적인 국가도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국가는 지역중심의 경제연합에 통합되기보다는 서구지향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지난 약 20 여 년의 기간 동안, CIS 국가들은 과거의 소비에트에 종속 되었던 기억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배제한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오기도 했다. 각 국가들은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다자간의 경제협력체제 구성에서 오는 정치-경제적 문제점들을 회피하고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얻으려고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CIS 국가들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이들 국가 내부의 경제적 한계로

22) 아르메니아도 자국 수출의 15.4%, 수입의 20.0%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2011 년 CIA World factbook 자료 기준) 러시아에 이주한 자국 근로자가 송금하는 금액이 전체 GDP 의 9%를 차지하는 등(World Bank 2011 년 자료 기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큼.

23) 박지원,(2003) 「아르메니아의 유라시아 관세동맹 참여」.

인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채 결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에 편입되고 말았다. 반 러시아적인 성향의 국가들만으로 구성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했던 CIS 국가들 간의 협력체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CIS 지역 내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역할을 배제한 개발도상국 국가들만의 경제협력체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대 각 공화국들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국가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헤게모니를 가진 강대국이었다. 1990년대 CIS 국가들 또한 서구 경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높은 대외 교역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CIS 지역에 대한 투자와 러시아로의 노동유입과 송금이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0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출범시킨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5년 옛 소련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을 결성해 EU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꿈이다. 러시아는 탈 러시아를 꿈꿨던 옛 소련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 에너지, 무역 보복을 통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세르지 사르키산 대통령은 2013년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1월 EU와의 FTA체결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EU와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관세동맹에 가입하고 유라시아 연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올해 6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아제르바이잔에 10억 달러어치의 군사무기를 제공할 것이며 아르메니아에 압력을 넣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 관세동맹에 합류하겠다고 굴복했다. 하지만 유럽 경제권과 통합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박에도 버티고 있다. 2013년 7월 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옛 소련권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러시아는 바로 다음 날부터 무역 보복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제과업체인 로센의 초콜릿, 사탕, 과자에 대해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가 EU로 기울 경우 러시아와의 항공 우주 산업, 조선,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단돼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최소 120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 6월 EU와 FTA 협상을 마친 몰도바도 러시아의 보복을 받고 있다. 2013년 9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EU에 접근하는 몰도바에 대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통제를 상실 할 수도 있다고” 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몰도바산 와인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시켰다. 친 EU 행보를 보여온 조지아도 주요 상품인 포도주와 광천수의 러시아 수출 길이 이미 끊겨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방위 압력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보호 무역주의에 불만을 떠뜨렸고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벨라루스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9월 석유 수출분의 25%를 줄였다.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는 “러시아는 지정학적 패권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나라”라며 “옛 소련 국가를 놓고 EU와 러시아 간의 거대한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²⁴⁾

간단히 정리하면, 유라시아라는 대륙지역통합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내의 필연적인 과정이자 지향하는 최대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대륙지역통합이 과연 경제적인 효과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의문스럽다’고 결론 지으려고 한다.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CIS 회원국들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연합의 출범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유라시아연합(단일 시장)의 출범은 통합 후유증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단일 통화 도입까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지속 중이다.²⁵⁾ 대부분의 CIS회원국들이 여전히 러시아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구축된 물류 인프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수반될 후유증에 대해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고, CIS의 경제 통합 과정에 대한 단계적이 대응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의 미래는 역내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유라시아 연합 출범 후에 상당기간 유지될 각국의 산업 특징을 빨리 파악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장을 얼마만큼 선점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임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4) 전승훈, (2013) 「유럽연합 vs 러시아 빅메치 돌입」, 동아일보.

25) 2011년 8월 관세동맹 3국 총리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2012년 6월 페테르부르크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단일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

<참고문헌>

- 김성휘, 2011 「러시아 경제대국의 꿈」, '유라시아 경제연합' 시동, 머니투데이
- 김영진, 2007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통합: EurAsEC」. 『중소연구』, 31 권 3 호, p. 189
- 박지원, 2013 「유라시아관세동맹의 추진 전망」,
- 신범식, 2006 「21 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pp. 15-20.
- 이재영 외 3 인, 2011 「 CIS 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1-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90-122.
- 전승훈, 2013 「유럽연합 vs 러시아 빅매치 돌입」, 동아일보.
- 하유정, 2001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지역리포트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8.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중앙일보, 2008 「유라시아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러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경제전문가 과정
- 황지영, 2009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 09-30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Armenia to join Customs Union, RFE/RL, 2013. 9.
- Ibid., Статья 6.
- Ibid., Статья 7.
- Oleksandr Sushko, 2004 "The Dark side of Intergration: Ambitions of Domination in Russia's Backyard", The Washington Quaterly, 27:2, pp. 119-131
- Patrizia Tumbarello, 2005, pp. 9.
- Zamirbek Manasov, 2008 “The aspects of central asian economic integration after 1991: the reasons of inefficienc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pp. 42.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от 24 сентября 1993 года. Статья 4

Ергали Байльдинов, 2011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проблемы и ориентиры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4.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щем аграрном рынке государств-участников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от 6 марта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от 25 января 2008 года.

▶ 인터넷 검색 ◀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kazakhstan/8808500/Kazakhstan-welcomes-Putins-Eurasian-Union-concept.html>, (기사 날짜: 2011. 10. 06)

■ <http://www.me-journal.ru/357/43691>

■ <http://www.evrazes.com/about/history>